

한국 주거내부공간의 근대화요소에 관한 연구*

— 주거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페미니즘적,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본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Factors of Interior Spaces in the Korean Housing

- From the sociological, anthropological, feministic and tectonic point of view of housing-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전임강사 전 남 일**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ulltime Lecturer : Jun, Nam-II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interior spaces in the Korean housing, focused not only on the architectural aspects, but also on the sociological, anthropological and feministic aspects of hous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housing from the period of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and Japanese domination through the period of industrial development to the period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have been reviewed not from the point of westernization but from the point of Korean own needs for modernity. It also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behavior patterns and space organization through historical change of housing plans. As a result, it was found the various western impacts to the continuation or change of Korean housing culture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Consequently this study comes to the concrete results as follows:

- 1) sociological aspect: The early layout of floorplans, that promoted the communication and contact between the user were changed. The layout of spaces in the modern housing tends to be not interdependence each other and be very isolated from the outdoor spaces. Those phenomena reflect the trends to the Individualization, equivalence and privatization in the life of family.
- 2) feministic aspects: Differently from the early kitchen, modern ones locates in the internal space in the housing and the dinning area is appeared. And also the standing work at the kitchen war usually spreaded. Such changes are due to the emancipation of the women and downfall of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s.
- 3) anthropological aspects: The lifestyle, in which the user was mostly sitting on the floor, was constantly disappeared by using of furnitures that determines the function of each spaces in the housing. Those change demonstrate the change of behavior patterns, thus, the needs of differentiation of function as well as the feministic needs. In other word, the coexistence of both fields of work and relax is required.
- 4) tectonic aspects: In the indoor space of modern housing the rooms are closed each other. Thus, concentrated circulation system act to separate these spaces. It is concrete spatial element that mostly shows the synthetic character of modern housing,

▲ 주요어(Key Words) : 근대화(modernization), 사회적 행위(social behavior pattern), 페미니즘(feminism), 주거사회학(housing sociology), 공간구조(layout of internal space), 문화인류학(anthropology)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의 주거학 연구는 주거라는 현상의 시간적, 역사적 변화와, 그 배경이 되는 여러 사회 문화적, 구조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관찰한다. 한국의 주거는 서양 문화의 도입, 일제 강점기, 전쟁, 전쟁 후의 복구와 개발,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급격한 사회변혁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

* 본 연구는 2001년도 가톨릭대학교 정착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 전남일(E-mail: nijun@catholic.ac.kr)

특히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오늘날에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과거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세기 말 서양의 문물이 한국에 유입된 이래, 한국의 주거건축이 급격한 변화를 거치는 과정은 많은 부분이 “서구화”와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주거를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는 전통적 주거형태가 소멸된 것으로 인하여 “단절”의 측면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편으로 주거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변혁과 함께 한 거주자의 생활과 의식, 요구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근대화되는 변혁기에 한국주거가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한편으로는 존재한다는 시각을 갖고 본 논문을 출발하였다.¹⁾ 근대화 과정에서 자체적 내적 성숙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변화 요구 및 발전에 대한 고찰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거의 변화를 건축적 측면과 함께 인문적 측면에서 관찰하여 한국주거의 근대적 요소 및 그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근대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한국 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근대화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동반된 서구화라는 외적 요인, 자체적 변화요구라는 내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 둘째, 서구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적 충돌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점, 한국 주거특성이 유지 보존된 부분, 한국적 주거문화와 “서구적인 면”이 동화된 부분 등을 관찰하여 한국주거의 근대화에서 나타난 특성을 규명하는 것, 셋째, 주거의 문화역사적인 변화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패턴과 평면으로 나타나는 건축적, 공간적 특성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전반의 현상 중 주거공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일반적으로 거시적으로는 정치, 경제의 변화와 동반되는 주택정책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도시화 등이며, 미시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의식

1) 근대 이후 한국 전통주거의 연속과 단절에 관한 논의는 외형적으로 관찰했을 경우와 그에 내재된 공간의 의미를 관찰하였을 경우 매우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는 주거의 재료 및 생산방식에 의해 표출된 의장적, 건축구조적 특성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목구조로부터 조적조나 철근콘크리트조를 거쳐 고층집합주택의 벽식과 라멘조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재료의 변화에 의한 급격한 변화가 특징이다. 이는 한국주거의 근대화를 논할 때 그 텍스트적인 면과 공간적 구성의 특징을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단절”에 비중을 두는 논의이다. 후자의 경우는 이보다 내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내 단독주택 및 아파트도 한국 전통주거의 내재적 맥락을 있다는 연속의 시각을 갖는 논의이다. 본 논문은 주로 내부공간의 평면을 고찰함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는 변화” 내지는 “연속성의 정도”, 즉 변화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지배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갖는다. 또한 연속성을 고찰함에 있어서도 “충격 및 반응에 의한 발전”과 “내재적 발전”은 공존한다는 견지에서 양자가 어떠한 비중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였다.

및 상호관계 변화, 서구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변화이다. 본 연구는 이 중 주로 미시적인 요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거 내부공간 변화의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인문적 요인에 관계된 주거사회학적 관점, 페미니즘적 관점, 문화적 및 생활양식적 관점, 그리고 공간구성 및 건축적 요인에 관계된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조혜정(1997)²⁾은 한국의 근대형성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전통적 농경국가사회에서 근대화 과정인 식민주의적 근대형성기(조선조 말 ~ 1950년대)와 개발주의적 근대(1960년대, 1970년대)를 거쳐 현재의 후기산업사회(80년대 이후)로 진행된다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이 각 시기들마다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는 평면들이다. 문헌에 나타난 평면들을 수집하여 이들을 시대별로 거주수준에 따라 분류한 후 공간적 변화가 나타나는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특정변화가 인문적 배경인 근대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를 고찰하였다.³⁾ 단독주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례를 수집하였고, 점차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 가는 과정에서는 단독, 공동주택의 사례를 병행하여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이때 사례의 선정은 통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중하층 이상의 주택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류계층은 새로운 주거유형을 점유하기보다는 여과(filtering)과정을 통하여 낙후된 중하층의 주택을 시차를 두고 점유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II. 본 론

1. 한국주거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근대화의 정의 및 주거건축의 근대화에 대한 관점

2) 조혜정(1997)은 가부장제 변형의 중요한 변인을 첫째, 경제생산이 가족과는 분리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산업화 및 도시화의) 정도와 둘째, 근대적 평등이념의 전파로 보았다. 이 가부장제 변형이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있어서 미시사회의 변혁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본 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주거 내부공간의 변화에 이러한 시기적 분류를 적용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 이 변인은 근대적 주거가 1)주거와 일의 균형, 2)공적관계와 사적관계의 균형, 3)주거취득 관계의 합리화, 4)주거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역할에 의해 정의된다고 한 Hausserman & Siebel(1996)의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3) 본 연구에서는 동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주거공간의 평면들을 조사하여 통계적인 표준형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공간의 변화현상이 나타난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그 대표성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평면을 통시적으로 관찰, 분석, 비교함에 있어서 이전시기와 달리 나타나는 변화를 주목하며, 그 변화가 지속성을 갖고 고착화된 사실인 경우 그 저변에 내재된 의미 있는 단서를 추적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유효성은 박인석 외 2인(1999)과 이진경(2000)의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있다.

Hoernig(1976)는 일반적인 사회적 근대화 현상을 첫째, 친족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및 아동의 조기사회화, 그리고 가족내부의 감정적 밸런스 유지, 둘째, 사회 계층구조간의 불분명한 경계로 인한 계층간 이동성의 개방, 셋째, 사회적 행위, 또는 상호 행위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의 여지 확대, 넷째, 가부장적인 강제보다는 개인적인 권한으로 인한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확장이라고 정의하였다. 정호근(1998)은 이러한 근대화과정을 “분화의 과정”으로 정의하며, 이는 체계와 생활체계의 분화, 체계의 내적사회로의 분화, 생활세계의 합리화라는 내적 분화의 과정으로 구체화된다고 정리하였다.

주거사회학적 입장에서 주거는 변화하는 유기체이며 한 문화를 지배하는 삶의 유형으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분명한 것은 “변혁이 미적 관조에 있어서, 특히 건축에 있어서 경제, 사회구조와 함께 하며 이 평행한 관계는 어떠한 (연관된) 의미 체계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며, 이 관점에서 근대적 주거는 “올바른 삶의 종류에 대한 상상의 상징적 표상”, 즉 높은(높다고 여겨지는) 삶의 수준과 현대적 삶의 방식에 대한 표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완성된다(Lee, 1999).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근대성연구, 특히 주거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관계된 근대적 가치 수용과 그에 따른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권희영, 2001).

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혁은 그 사회의 내적 요구의 자연적 표출, 그리고 그 사회가 부딪치는 외적 요인과의 충돌이 주원인이 된다. 전자의 경우 사회가 진보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근대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서구의 경우는 19세기 말 산업혁명을 계기로 본격화되면서 외적요인과의 충돌 없이 전개되었다. 외적 원인으로 인한 근대화는 이미 근대화된 사회와 접하면서 이질적 사회의 문화와 동화되느냐 또는 고유성을 유지하느냐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행된다.

이렇듯 사회적 근대화에서는 내적, 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거의 변화를 논할 때 근대화 과정에는 서구화가 더욱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인 사회이념이 변화되면서 성공적인 근대화(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성공지향적, 기능적 특성화)를 위해서 덜 발전된 사회는 전통적인 특성을 포기하고 발전된 사회의 대안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는 서구에서 그 대안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Hoernig, 1976).

따라서 한국주거의 근대화에 관한 선행 연구는 개항 초기와 일제강점기의 외부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임창복(1989)은 주거건축의 흐름을 일본화나 서구화라는 편중된 측면에서 조명하기보다는 근대화나 도시화의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김상희(1995)는 전통적 요소의 지속과 변용을 고찰하면서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서구화를 초월한 지방성과 지역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현재 주거의 근대화에 대한 논의는 주체적 변화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합

적 시각, 연속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2) 근대화시기의 주거변화의 특성

근대화의 과정에는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요인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인구증가, 도시화, 빈번한 주거이동, 가구의 절대적 수적 증가 등이 거론된다. 한국의 경우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내부공간을 갖는 주거형태가 지배적으로 점유하게 된 과정은 거주자의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거의 사회가 주거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과정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전쟁과 복구, 경제개발 등을 거치면서 양적 주거요구의 충족이라는 정책상의 과제, 도시로의 인구이동, 그리고 주택의 짧은 물리적 수명으로 인한 빈번한 주거교체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한국인이 일생동안 겪는 주거전력(biography)이 매우 단기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⁴⁾

주거이동의 과정은 필터링(여과:filtering)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특정 시기의 주거를 선호하는 유형이 등장하면 이들 주거는 대부분 설비 및 규모수준의 향상을 동반하므로 우선 중상 계층에 의해 점유된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이 중상계층이 다시 새로운 유형으로 이동하면 이전의 주거는 한 단계 하위계층에 의해 점유되는 것이다. 사회의 계층은 경제력, 교육수준, 출신가문 등의 기준으로 분류된 그룹이며, 개인은 각 그룹에 속하게 된다. 각 계층에는 신분상승의 욕구와 신분의 과시욕구가 존재한다. 전근대적 사회에서 상위 계층으로의 상승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에 반하여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거라는 것이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옵션이 되었다(Lee, 1999).

Geissler(1996)에 의하면 복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위계층은 개선된 주거를 통하여 이전의 중, 상위계층의 특권이었던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터링작용에 의해 한 시대에는 그 사회의 주거가 변천해 온 이전 단계의 주거 유형들이 동시대에 공존하게 되며, 이는 하위계층부터 상위계층까지에 의해 점유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거 이동과 주거교체는 새로운 주거내부공간이 확산되는 강한 계기가 되었고, 한국 주거가 근대화된 주거로 단기간에 대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공동체지향적인 사회관계는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 내부적 관계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 관계에서 평등적 관계로, 상호 의존

4) 주거전력(독일어표기: Wohnbiographie)이란 한 가족이 평생의 생애 주기 동안 겪게 되는 주거 경험으로서 결혼, 출산, 분가, 독립, 직장 이동, 가족구성원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구구성원의 변화가 주거이동(이 두 변화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따로 나타나기도 한다.)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이력을 말한다. 한 가족의 주거전력을 관찰함으로써 거시사회적인 인구이동, 가구수 변화, 전통적 가족구성의 변화, 특정 시기에 거주하는 주거형태, 주거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등을 추론할 수 있다.

적 관계에서 상호 존경과 독립적 관계로, 친밀성 부재의 관계에서 친밀성 형성의 관계로, 혈연관계에서 이해관계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행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의 미시사회적 가족 내부의 변화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요구를 불러왔고, 이는 내부공간이 변화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들은 주거이동과 함께 변화된 주거 내부공간에서 관찰된다(Lee, 1999).

2. 주거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근대화

1) 가족간의 사회적 상호관계 변화와 주거 내부공간의 변화

조선조의 전통 농경사회에 있어서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한 기본 이념은 유교였다. 즉 가족관계를 모든 사회적 관계의 중심 관계로 보았고 이를 여타 다른 사회적 공동체보다 우위에 두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 하의 서열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사회의 근대화 경향과 함께 퇴색되면서 현대적 삶의 방식과 갈등, 동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이는 주거 내부공간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한국사회는 조선중기까지의 수직적 위계관계(부자>모자>고부)를 형성한 시기를 거쳐, 60년대 이전까지의 상징적 부자관계(실질적 모자>모녀)를 형성한 시기를 지나 60년대 이후의 부부 중심(부부>부모자식>노부모자식) 사회로 전이되었다.⁵⁾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한 80년대 이후에는 모든 관계가 중요시되는 수평적,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될 것이 전망된다. 이때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이되면서 특정 구성원(가장, 또는 부모)에게 집중되었던 가족 내의 힘은 분산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남성들간, 여성들간 결합되었던 가족구도는 부부간, 아동들간 결합된 구도로 변화하게 된다.

공간적으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개실에서 공적, 사적 기능이 혼재되고 서로 강하게 결합되었던 전통적 주거 공간⁶⁾의 성격이 소멸되어간다는 점이다. 과거에 각 개실에서는 접대, 단란, 사적 생활이 동시에 행해졌고, 사랑방, 대청 등 공적성향이 강한 공간 역시 공, 사가 혼재된 안방, 또는 사적공간인 침방 등과 상호 융통성, 침투성을 가지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미세기문 및 분함으로 된 여닫이문으로 마루, 또는 대

청에 연결된 각 실은 매우 융통성이 강하게 구성되었고, 이로써 사적공간과 공적공간간 경계는 넓은 면에서 개폐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표 1>.

근대적 주거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외적여닫이문 -투과성 재료로 된 전통적 분함형 여닫이문보다 폐쇄성이 강한-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 창과 벽체의 구분이 모호하였던 전통주거와 달리, 서양식 주거에서 공간과 공간의 구획은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의 강한 차폐성을 갖는 벽체와 외적여닫이문으로 구성된다. 이는 출입동선의 집중화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건축기술, 재료 등의 물리적 차원의 변화는 사용자의 환경지각적 내용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과거 마루, 대청이라고 통칭된 공간은 유교적 의례와 같은 공적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 개실 간을 연결해주는 통로공간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 공간의 성격변화는 <표 1>의 도식처럼 설명된다. 3면이 미닫이문으로 이루어져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흐르게 되었던 구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닫이문으로 3면이 이루어지나, 벽체면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 구성으로 변한다. 이후 여닫이문이 한편으로 집중되면서 문은 거실(70년대 이후 거실이라는 명칭이 나타남) 공간으로 열려지지 않고 최소 두 벽면이 확보된 구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표 1>의 2)의 평면의 경우 각 개실을 출입할 때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선이 개방된 공간으로 유도되고 있으나, 4)의 경우 거실로의 동선 및 부분적 시각적 접촉은 어느 정도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공동체간 결합을 지향하느냐, 또는 사적인 경향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강제적, 유도적인 것에 비하여 개인의 통제하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추세에서 분화가 심화될 경우 시각적 접촉까지도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구성이 나타나리라 추론할 수 있다. 즉 거실공간이 통과동선이 집중된 복도공간과 완전 분리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성의 대표적 특성인 개별화 경향이 주거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이다.

유럽의 주거평면에서는 종종 복도와 거실 문을 통해서 거실로 출입하게 되어 전면창 외에 3면의 거실벽체가 확보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때 각 개별 공간은 복도라는 완전 분리된 공간으로 통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족 공동공간인 거실로의 출입은 강제적, 또는 유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족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의한다. 즉 각 공간들의 관계는 동선과 시각적 차단 통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오늘날 한국의 도시단독주거와 아파트의 거실이 서구와 달리 주거의 중심에 위치하여 독립적인 거실의 기능과 함께 각 실을 연결하는 홀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는 점, 그 호칭도 “마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점은 거실공간이 전통주거의 자취를 부분적으로 유지함을 보여준다. 그 분화의 정도는 완전 분화된 서구 주거의 이전단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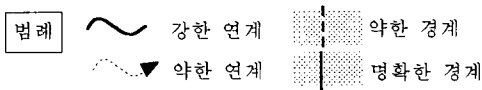
5) 도식의 의미: 예를 들어 부자>모자>고부는 가족 내 사회적 관계 중 부자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강한 결합체를 형성함을, 그 다음 모자관계, 고부관계의 순으로 그 관계의 중요도를 형성함을 나타낸다. 임도희 외 6인(1999)에서 인용

6) 전통적 주거공간에서 상류주택의 경우는 침방, 안잠자기방과 같은 사적인 공간과 안채대청이나 사랑마루등과 같은 공적성격이 강한 실이 분화된 형태를 보이며, 이는 사적 개실의 발달수준이 낮은 민가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분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상류주택에서도 그 분리의 정도가 오늘날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즉 “분화의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과거의 안방에서는 여성들의 공, 사적 행위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공, 사의 구분이 덜된 민가에서는 그 혼재의 정도가 오늘날과 더욱 상이하게 나타난다.

<표 1> 주거공간과 가족간 사회적 관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개략적 도식
조선조 말	1)	6)	
일제시기 - 1950년대	2)	7)	
1960년대	3)	8)	
1970년대 - 1980년대	4)	9)	
1980년대 - 1990년대	5)	10)	

- | | |
|-------------------------|------------------|
| 1) 없음 | 6) 조선 말기, 만리동 |
| 2) 1920년대, 조선영단주택, 만리동 | 7) 1950년대, 공영주택 |
| 3) 1968년, 공무원아파트, 동부이촌동 | 8) 1968년, 지역 불분명 |
| 4) 1975년, 주공3단지 아파트, 잠실 | 9) 1977년, 강서구 |
| 5) 1989년, 현대아파트, 홍제동 | 10) 1980년대, 북가좌동 |



2) 외부사회와의 관계변화와 주거 내부공간의 변화

담에 둘러싸여 외부로부터 폐쇄된 듯이 보이는 한국의 전통 주거공간은 실제로 대문을 열면 마당을 비롯하여 대청까지 시각적으로 개방된 구조를 갖는다. 각 개실은 마당과 같은 외부 공간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일단 다른 내부 공간을 한번 거쳐 각 개실로 출입하게 되는 오늘날의 구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단 포용의 범주에 들어온 사람 (대문을 열고 들어온)에게는 가족내부의 친밀공간까지도 내보이도록 경계벽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이외의 사적 친밀감을 갖는 공동체는 핵가족화된 오늘날의 “친밀”의 개념보다 확대된 것으로서, “우리”의 범주에 드는 친척, 방문자, 즉 엄밀한 의미에

서 지역공동체까지 포함된다. 즉 가족의 사적 경계는 내부공간을 둘러싼 벽체가 아니라 담장까지 연장됨을 알 수 있다. 마당이라는 공간은 반사적, 반공적 성격을 갖는 완충공간으로 마을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을 포용하며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명확한 경계를 약화시킨다.⁷⁾

이러한 관계가 변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공동주택의 경우 마당의 소멸,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과 내부공간간의 관계 약화, 그리고 전이공간의 역할을 하는 현관공간의 등장이다. 모든 실은 하나의 현관을 통해 진, 출입되고 가족의 사적인 공간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나의 단위주거는 현관을 통해 익명성의 공간에서 사적 가족공간으로 직접 전이되면서 “우리”의 범주에 드는 중립적 공동체를 위한 공간은 사라지게된다. 이는 한국 문화의 집단지향적 성격(이광규, 1997)이 매우 약화되는 현상이 공간구성으로 구체화된 것을 보여준다.

<표 2>의 사례에서와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원래 외부공간과 가장 개방적으로 구성되었던 전통적 마루, 또는 대청은 우선 유리창문을 장착하여 개폐 가능한 구성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현관이 등장하여 거실 전면에 유리문과 현관이 혼재된 구성을 거쳐 오늘날에는 현관이 후면에 자리잡게되는 구성으로 정착하게 된다. 반면 공동주택은 처음부터 현관이 함께 구성되었다. 거실의 전면은 공동주택의 도입 초기에는 미세기 유리창으로 여러면이 개폐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전면 통창과 발코니로 출입할 수 있는 좁은 면의 유리 미세기문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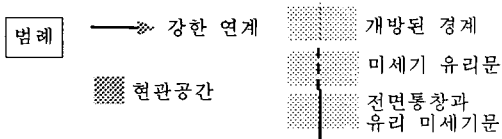
원래 마루는 난방설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여름 거주”를 위한 반외부, 반내부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마루, 대청공간이 외부와의 관계에서 점점 폐쇄적이 된 원인중의 하나는 설비의 발달로 인한 내부공간화이다. 이 공간을 겨울을 비롯하여 사시사철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창호설치, 문의 설치, 나아가 난로 및 라디에이터 설치로, 이후에는 보일러와 바닥난방 설치로 구체화되었다. 공동주택의 거실은 난방이 더욱 확실하여 초반부터 거의 연탄보일러를 통한 난방설비가 도입되었고 이후 바닥의 패널히팅도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단독주택의 마루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의 근대화된 주거공간에서 구조적 의미에서의 전통주택의 마루는 사라졌으나 거실의 창이 현재도 인방 없이 바닥끝까지 내려와 발코니에 연결된 형태를 갖고 있어 과거 대청과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7) 주거의 내부공간만을 대상으로 한 본 논문에서는 내부 거주공간이 이루는 경계의 강, 약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과거에는 내부공간의 깊이가 얇고 내, 외부공간 경계는 (가족의)사적공간과 (지역공동체의)반사적, 반공적 공간간에 약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반면, 오늘날의 내, 외부공간의 경계는 (가족만의)사적공간과 (공공의)공적공간과의 강한 경계를 이룬다. 전통주거에서의 광역으로 분산된 프라이버시에 반하여 근대적 주거에서의 프라이버시는 내부공간이라는 좁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외부라 함은 물리적 외부공간을 일컫는다.

<표 2> 주거공간과 외부사회와의 관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개략적 도식
조선조 말	1)	6)	
일제시기 - 1950년대	2)	7)	
1960년대	3)	8)	
1970년대 - 1980년대	4)	9)	
1980년대 - 1990년대	5)	10)	

- | | |
|------------------------|-------------------------|
| 1) 자료없음 | 6) 조선말기, 인사동 |
| 2) 1920년대, 조선영단주택, 문래동 | 7) 1954년, 창천동, 정릉동, 안암동 |
| 3) 1962년, 마포아파트 | 8) 1969년, 지역 불분명 |
| 4) 1977년, 반포3단지 아파트 | 9) 1973년, 관악구 |
| 5) 1983년, 지역 불분명 | 10) 1984년, 서대문구 |



또한 과거 주거 내에서 수행되었던 가사노동 및 병, 죽음에 대한 보호기능 등이 인프라의 등장으로 주거로부터 떠나고 전문화되면서 개인은 초개인적인 지배시스템에 구속되게된다. 즉 개인, 또는 가족 및 공동체 단위로 통제했던 “지배적 생활 공간-모든 가능한 삶의 행위가 일어났던, 한국의 경우 마당까지 포함하여-”을 상실하면서 주거, 그 중 내부공간은 외부사회와 단절된 독립적이고 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게된다. 이는 Hausserman & Siebel(1996)에 의하여 “공, 사의 분리, 일과 주거의 분리, 사회적 지위의 상징, 개별화 및 독립화, 육구만족의

사사회”로 대변되는 근대적 주거공간의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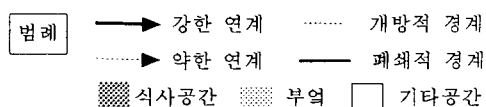
3.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근대화

과거 한국의 가부장적 강한 부계혈연주의 하에, 공식적으로 한 가족의 우두머리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수직적 권력배분의 중심에 있었다(고영복, 1993). 이는 부부관계(수평관계)보다 우선하는 세대간의 강한 유대감(수직관계)과 사회적 차원의 보장을 대신하는 책임의식을 동반하였다. 부자유친, 장유유서,

<표 3> 주거공간과 여성의 지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개략적 도식
조선조 말	1)	6)	
일제시기 - 1950년대	2)	7)	
1960년대	3)	8)	
1970년대 - 1980년대	4)	9)	
1980년대 - 1990년대	5)	10)	

- | | |
|-------------------------|------------------------|
| 1) 없음 | 6) 조선말기, 부교동 |
| 2) 1920년대, 조선영단주택, 문래동 | 7) 1920년대, 도시형 한옥, 삼천동 |
| 3) 1968년, 공무원아파트, 동부이촌동 | 8) 1967년, 지역 불분명 |
| 4) 1976년, 주공5단지, 잠실 | 9) 1978년, 강남구 |
| 5) 1993년, 지역 불분명 | 10) 1990년대 작가주택 |



부부유별의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가족구성원은 서열화 되었고 각 공간에도 역시 엄연한 위계질서가 부여되었다. 각 공간은 그 곳에서 행해지는 기능으로 통침(침실, 식사실, 거실 등)되기보다는 그 곳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 정의되었으며(안방: 여성, 사랑방: 남성), 각 공간에의 남성과 여성의 주생활행위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남녀유별과 남녀간 위계의식은 가족 내 성적 역할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거 내 불평등의 구조로 구체화되었다.⁸⁾ 예를 들어 부엌이 “남성들이 출입하지 않는 곳”으로 정의되면서 가사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다. 또한 상류주택의 경우 안채가 여성들과 아동들의 공간으로 규정됨으로써 출산 및 육아 역시 안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만의 의무이며 부담이었다.

사회의 변혁기에 특히 주목할만한 요인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의 변화가 거론된다. 과거의 한국 주거에 내재되었던 성적 역할구분과 위계, 그리고 성차별적 요인 역시 근대화과정을 통하여 극복되어간다. 각 실은 “사용자의 분리와 기능의 혼용”에서 “사용자의 혼재와 기능의 분리”로의 변화를 겪게된다. 식침혼용의 주생활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위생의 개선 및 합리화 추구”라는 문명과 계몽의 이념 아래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 주거 내 기능분리를 가속화하였다.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주거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은 주로 가사노동감소 및 생활의 합리화에 관련된 부엌설비의 도입으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부엌 및 식사공간의 배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주거공간의 평등화 과정에서 추적할 수 있다. 공간 내 성적 구분의 와해와 함께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여성의 공간인 안방이 부부공용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이 접대 및 가족단란공간인 거실로 흡수되면서 가족 공동공간으로 통칭되는 거실 및 식사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Warhaftig(1982)에 의하면 한 가족 내 아랫사람의 일손이 많을수록 부엌은 주거 내 주 생활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더욱 탈중심적이 되어 일하는 사람의 생업의 장이 된다. 한국 전통주거의 부엌도 전형적으로 주거공간과 분리된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여성의 노동의 공간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엌은 <표 3>의 사례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분리되었다가 점차 가족 공동공간에 인접되면서 통합되어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약화됨을 볼 수 있다. “식당”, 또는 “주방”이라는 공간의 명칭은 7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고 초기에는 부엌에 통합되어 구성되었으나 점차 따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80년대 이후에는 부엌과 인접하여 식탁이 배치된 식사공간이 나타난다. 입식부엌 설비와 식탁의 도입은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류층, 또는 중상층 거주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아래 계층으로 확산된다. 이는 서구화에 대한 동경 내지는 모방이

크게 작용한 측면으로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의 주거를 지향하는 욕구를 나타내는데, 이를 Karnacher(1987)는 식민화 압력(Kolonisationsschub), 또는 동화 압력(Assimilationsschub)이라 정의하였다.

난방설비의 발달로 부엌은 더 이상 안방에 인접하여 배치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안방과의 레벨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과거의 부엌은 거주공간으로부터 소외된 작업공간으로 규정되어 신을 신고 다니는, 바닥이 습한 공간이었던 반면, 근대화 이후의 부엌은 설비의 발달에 힘입어 습한 바닥이 사라지고 거실과 같은 바닥 재료로 마감된 내실화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부엌공간이 내부공간, 거주 공간, 여성이 일하는 것이 노출되어도 좋은 공간으로 재규정 되었음을 의미한다.

취침, 식사, 접대 등을 위하여 정해진 공간 -이때 그 규정은 일반적으로 가구배치로 정해지며, 각 공간에 부여된 실의 명칭으로도 확인된다.-에서의 주생활행위를 하기 위하여 거주자는 “장소의 이동”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변화는 가부장적 부권 내지는 연장자의 권위적 위상이 매우 약화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즉 부엌이 입식화 되면서 식탁이 도입된 이후 “식사공간”이라는 장소는 남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식사를 위하여 이동해야만 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과거 가사노동의 기능적 편리함을 저해하고, 성적 불평등을 초래한 부엌과 식사공간의 분리는 점차 사라지고, 부엌과 식사공간은 주거 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가족의 사회생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식탁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게 되었다. 이는 과거 서비스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이 부엌으로부터 밥상을 들고 서비스를 받는 역할을 가진 연장자, 또는 남성이 있는 장소로 가서 서비스를 해야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와해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좌식생활에서 방에 앉아있는 행위는 곧 서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반면 입식생활은 어떠한 행위를 위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다 평등한 생활방식으로 간주된다.

4. 문화적, 생활양식적 관점에서 본 근대화

한국주거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문화적, 생활양식적 요인은 좌식생활이다. 근대화 이전 한국의 주거공간에는 수납용 가구는 있었으나 소파, 식탁, 의자 등의 신체가구는 없었다. 좌식은 온돌, 실내에서 신을 벗는 행위, 그리고 신체접촉 가구를 사용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신체가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간의 성격 및 역할이 오늘날의 식당(식탁으로 규정), 거실(소파로 규정), 침실(침대로 규정) 등과 같이 가구배치로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가 없으므로 한 공간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에 앉아있는 행위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매우 정적인 행위, 즉 휴식, 공부, 담소, 접대 등과 같은 행위가 대부분이다. 따

8) 김진명(1996), p.71, “가족구조는 여성에게는 지극히 불편한 공간이었지만 일상잠사에 초연한 남성의 경우에는 방에 앉아서 마당과 하늘과 선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다.....”

라서 좌식을 전제로 한 공간은 주로 거주실인 안방, 사랑방, 마루 등이 된다. 반면 앉아있지 않는 공간, 즉 입식의 공간은 작업공간을 의미하며 이곳에서는 노동을 위한 움직임, 신을 신고 외부와 빈번히 오가는 행위 등이 일어난다. 전통주택에서도 부엌의 개수대 조리대 등은 입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곳에서의 정지된 작업동작도 거주공간에서와 같이 바닥에 완전히 밀착된 좌식이 아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행태를 보인다. 과거 서서 행해지는 작업행위와 앉아있는 휴식, 담소등의 행위의 장은 상하위계, 또는 성적 역할에 의하여 분리되어 각 가족구성원에게 일관되게 부여되어왔다.

<표 4> 주거공간과 좌식/입식 주생활양식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개략적 도식
조선조 말	1)	6)	
일제시기 1950년대	2)	7)	
1960년대	3)	8)	
1970년대 1980년대	4)	9)	
1980년대 1990년대	5)	10)	

- 1) 없음
- 2) 1920년대, 조선영단주택, 문래동
- 3) 1964년, 마포아파트
- 4) 1977년, 반포아파트
- 5) 1989년, 현대아파트, 홍제동
- 6) 조선 말기, 만리동
- 7) 1920년대, 도시형 한옥, 삼청동
- 8) 1969년, 영등포구
- 9) 1974년, 은평구
- 10) 1985년, 도봉구

범례 □ 부엌 ■ 기타공간 — 벽체의 형성

주로 나이 어린 여성은 “(외부공간에서) 일어서서 다니며 노동하고 서비스를 하는 자”로, 남성과 연장자는 “(방에서) 앉아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자”로 나뉘어졌다. 한 공간 내에서도 밥상을 들고 드나드는 행위, 청소행위 등의 노동행위는 서비스 하는 자에게 위임되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가구가 도입되고 주거공간이 입식으로 전이된 데는 필연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오늘날 과거와 같은 노동과 휴식의 행위의 장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주거 내 각 공간에 균등하게 분포된다. 가족의 성격이 근대화되면서 권위의 와해로 인하여 한 공간 내에서도 휴식, 공부, 담소, 접대 등의 행위와 작업행위는 모든 거주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이 되었다. 이 두 행위가 혼재되고 성적 구분 없이 수행됨으로써 한 공간에서 좌식과 서서 작업하는 것, 또는 좌식과 움직여 이동하는 것의 혼재는 신체적 불편함을 동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는 두 행위간의 신속한 연계를 수월하게 해주는 신체가구 도입을 가속화하게 된다. 근대화 이후 부엌의 개량에 힘입어 가사노동은 외부공간에서의 행위로부터 내부공간에서의 행위로 전이되었다.

좌식이 소멸되어 가면서 가구를 사용하는 입식이 도입되는 과정은 <표 4>에서 볼 수 있다.

<표 5> 좌식과 입식 주생활의 특성

	좌식	입식
행위의 주체	- 남성/서비스를 받는 자	- 여성 및 연소자/서비스를 하는 자
신체적 특성	- 신을 벗음, 앉아 있음 - 신체적 활동에 불편 - 휴식과 담소, 단란에 적합	- 신을 신음, 서 있음 - 주거공간 내 활동적인 움직임 지원 - 노동에 적합
공간적 특성	- 바닥으로 공간구성 가능 - 개방적,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구조 가능 - 필요한 실 면적 감소	- 가구배치를 위한 벽면을 필요로 하므로 폐쇄적 공간구조 필요 - 가구를 위한 일정면적 필요 - 가구에 의한 동선의 방해
기능의 규정	- 신체가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실기능 미정 - 공간기능의 복잡성(다기능 수행) - 사용자에 의하여 공간기능 규정	- 신체가구 사용으로 실기능 정의 - 분화된 공간기능(단일기능 수행) - 가구, 실명칭에 의하여 공간기능 규정
행위특성	- 실내에서 신을 벗는 행위가 중요시됨 - 바닥과 신체의 긴밀한 접촉으로 정결한 관리 및 바닥난방(온돌)이 요구됨 - 바닥정결을 위한 여성의 노동 필요	- 완전입식의 경우 실내에서 신을 벗는 행위가 절대적이지 않음 - 바닥과 신체의 덜 긴밀한 접촉으로 정결한 관리 및 바닥난방(온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 입식 청소기만으로 청소 가능
근대사회에서의 역할	- 산업화사회의 주거공간 외 입식활동과 상반	- 산업화사회의 주거공간 외 입식활동과 상호연계

주거가 입식화 되면서 평면구성은 가구의 배치를 위한 거실 벽면의 확보, 부엌의 내실화, 각 공간의 기능 분화를 가능케 하는 구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표 1>, <표 2>, <표 3>에서 나타난 공간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게 진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냉장고, 청소기와 같은 각종 설비와 가전제품들이 도입되었다. 이들은 입식 작업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설비의 사용, 예를 들어 거실에서의 청소기 사용은 부엌 외의 공간에서도 좌식이 신속히 약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아울러 주거공간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전과 달리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가족구성원들은 직장, 또는 학교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입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하루의 주기 동안 입식과 좌식행위를 항상 바꾸어야만 하는 일상생활의 이중성에서 오는 불편함과 갈등 역시 좌식을 약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한국의 주거 내부공간에서 가구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는 행위가 일반적이라는 것은 신체와 바닥의 긴밀한 접촉관계, 즉 좌식 생활양식이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좌식과 입식은 주거공간 내에서 <표 5>와 같은 특성으로 정리된다.

5.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본 근대화

근대화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대두된 “자본주의, 휴머니즘, 계몽”(Kotre & Schaefer, 1993)의 의식은 모든 면에서 사회를 지배하는 “합리성”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구체화된다.

난방, 상하수도, 취사, 위생에 관련된 설비의 발달로 과거 외부공간이었거나 외부공간의 성격이 강했던 공간들은 모두 내부공간화 되었고 이는 공간의 내용과 기능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순희(1997)에 의하면 각 실의 성격분화, 개실화, 주기능의 내부화 및 집약화가 이루어진 데는 취사와 난방연료의 분리 역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전통주택에서 부엌은 외부공간으로의 성격이 강하여 흙바닥으로, 마루는 반외부, 반내부공간의 성격을 가짐으로서 난방이 없는 마루바닥으로, 방은 내부공간으로서 온돌바닥으로 구성되어 물리적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모든 공간은 패널히팅의 바닥난방으로 일원화되어 각 공간의 물리적 특징은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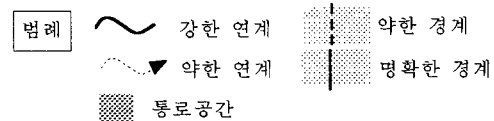
<표 6>의 사례에서 보면 과거에는 마루가 각 실로 통하는 통로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면서 이곳에서의 동선들은 매우 분산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각 인접 공간간의 밀접한 연계를 의미하였다. 이 때는 <표 6>의 그림 2)에서와 같이 한 공간을 통과하여 다른 공간을 출입할 때 통과되는 공간도 종종 나타난다. 이 역시 각 개실 간에도 상호 결합된 연결관계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후 도입된 소파, 테이블 등의 입식가구가 마루에 배치되고, 이는 마루에서의 빈번한 통과동선을 방해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마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주거공간 내부의 분산되었던 동선들은 점차 합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외곽여단이문이 출입동선을 좁은 면에 모아주는 데 일조를 하면서 각 개실로의 출입문은 현관으로 이르기까지 일정공간에 모여져 동선의 집중화를 가져온다. 이로써 거실은 가구배치를 위한 벽면을 확보하게 되나, 통과공간을 위한 별도 면적을 필요로 하게 된다.

<표 6> 주거공간의 공간구조적 변화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개략적 도식
조선조 말	1)	6)	
일제시기 1950년대	2)	7)	
1960년대	3)	8)	
1970년대 1980년대	4)	9)	
1980년대 1990년대	5)	10)	

- 1) 없음
- 2) 1920년대, 조선영단주택, 문래동
- 3) 1962년, 마포아파트
- 4) 1974년, AID아파트
- 5) 1986년, 상계동
- 6) 조선 말기, 지역 불분명
- 7) 1954년, 창천동, 정릉동, 안암동
- 8) 해방 후 서울시 표준주택안
- 9) 1974년, 영등포구
- 10) 1984년, 서대문구



또한 전통주택에서는 한 공간에서 내부,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두 부분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마당과

의 연계, 뒷마루의 존재로 가능했던 것이다. 각 실들은 마당이 있을 경우 마당을 포함하여 서로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상호 비독립적이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실 구성이 상호 관통적이고 유기적으로 흐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호지 마감의 분합식 여닫이문이나 벽면자체를 형성하는 미세기문은 점차 소멸되게 된다. 대신 거의 모든 주거공간에 철근콘크리트, 또는 조적조 벽체에 설치되는 목재 외곽여닫이문이 보편적 형식으로 고착된다. 즉 각 실은 하나의 출입문만 갖게 됨으로써 외부로부터 폐쇄적으로, 공간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변한다. 이는 개인주의를 그 기본적 관점으로 삼고 있는(권희영, 2001) 근대의 체제 하에 거주원의 생활이 독립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공간이 재편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근대적 특성을 갖는 주거공간은 일반적으로 상호 유기적 연계가 사라진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폐쇄된 독립공간의 구성은 개방적인 경우보다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므로 이전보다 증대된 주거면적, 향상된 주거수준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낮은 중하계층의 주거는 보다 개방적인 공간구성을 보인다. 개방적 주거공간은 기능이 혼재됨으로써 절대면적이 적게 필요하나, 벽체가 적게 형성됨으로써 가구 배치에 불리하여 좌식생활에 부응한다. 따라서 공간이 상호 결합되고 기능적으로 융통성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폐쇄적 주거공간은 기능이 분리됨으로써 이에 상응한 일정면적을 필요로 하고, 벽체가 확보됨으로써 가구배치에 유리하여 입식생활에 부응한다. 따라서 공간은 상호 독립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은 공간의 성격 및 면적, 그리고 주생활양식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대화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중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III. 주거공간의 변화와 근대화의 의미

1. 근대적 공간으로의 전이과정

사례조사에서 중류층 이상에서 근대적 요구가 반영된 내부공간은 대부분 70년대 이후 건축된 주택의 평면에서 나타났다. 이 70년대 이후 건축된 주택은 <표7>에서 나타나듯이 기존 주택의 대부분(91.4%)을 차지하고 7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대부분 소멸된 상태이다. 여기에는 70년대 이후 대량으로 건설된 아파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주택 중 8.61%만을 차지하는 70년대 이전 건축된 주택들은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현재 중하, 하류계층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70년대 당시 중류층을 대상으로 건축된 주택들 역시 90년 이후의 현재는 중하계층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 주거가 대부분 근대적으로 변화된 공간으로 점유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의 대표적 주거유형인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을 파악하면 각 공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는 변화, 변화가 없는 부분이 <표8>과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개인공간과 현관을 제외하면 각 주거유형에 따라 상이한 진행 단계를 보인다.

<표 7> 건축년도별 1995년 주택현황(단위%)

	1949년 이전	1950-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89	1990년 이후
단독주택	3.65	4.18	14.58	27.04	25.01	25.45
아파트	0.0	1.01	1.08	20.06	45.00	33.85
기타	0.37	0.40	1.49	11.50	45.92	40.32
전체	1.33	1.52	5.76	20.47	38.75	32.18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한국의 사회지표(1997). 기타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비거주 용 건물 내 주택 등이 포함된다.)

각 공간구성으로부터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유형에 근거한 구조적, 가족관계적, 권위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조혜정(1997)에 의해 규정된 60년대 이후 근대화 사회의 특성을 보인다. 이때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로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 아파트의 경우는 후기산업사회로 이양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변화의 결과들은 일차적으로 70년대 이후의 평면에서 나타난다. 즉 70년대는 한국주거의 근대화에서 시기적 분기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70년대 이후 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근대화특성은 사회와 가족 전반에 있어서 공업화 초기단계의 특성이 나타나는 60년대(조혜정, 1997)와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형성된 것이다.

2. 근대화의 특징

1)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의 근대화

사례연구의 결과 한국의 경우 흔히 아파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우선 도시의 상류층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산층, 상류층, 하류층의 순서대로 차츰 모방,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도시로부터 지방으로 유입되는 “문명화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된다(Hauserman & Siebel, 199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공통적으로 현관이 도입되어 주거공간 내부가 가족만의 사적 영역으로 변화한 가운데 사적 영역 내에서도 개인공간은 개인만의 이차적 사적 영역으로 분화한다. 근대적 특성을 갖는 평면으로 변화된 이후에도 단독주택의 경우 산업화사회 이전의 양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거실공간이 통과공간으로의 성격을 많이 갖고있고, 가족들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공간으로 전이되는데 아파트의 경우보다 후발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아파트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에 비하여 거실의 공적 성격과 개

<표8> 주택 유형별 및 각 공간별 변화

	단독주택	사회적 특성	아파트	사회적 특성
거실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개인공간 배치, 여담이문이 양 벽면을 점유, 거실 가구사용에 불리, 좌식에 유리	부계적 가족주의: 공업화 초기단계의 특성으로 이양 중	거실에 두 번의 벽체 확보, 거실가구 사용에 유리	공사개념의 재규정: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으로 이양 중
식사공간	식탁배치공간 없음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강조, 여성의 고립, 부부에 중심의 고립된 핵가족:	식탁배치공간 있음	남녀평등이념, 일방적 통제기제가 쌍방향 상호 작용형태로 변화: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으로 이양 중
부엌	거실과 인접하여 배치, 내부공간화, 입식, 폐쇄적	공업화 초기단계의 특성	거실과 인접하여 배치, 내부공간화, 입식, 개방적	의사소통력 강조: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
개인 공간	외곽여담이문 사용, 조적조, 또는 철근콘크리트 벽체	가족 내 익명성, 자기관리: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	외곽여담이문 사용, 철근콘크리트 벽체	가족내 익명성, 자기관리: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
현관	존재	핵가족의 사회 내 익명성 내지 고립성, 일와, 가정의 분리: 공업화 초기단계의 특성	존재	핵가족의 사회 내 익명성 내지 고립성, 일터와 가정의 분리: 공업화 초기단계의 특성
각 공간의 연계 및 구성	통과동선의 분산, 개방적	공적, 사적관계의 혼재: 공업화 초기단계의 특성	통과동선의 집중, 그러나 별도 통과공간 -복도와 같이 공, 사공간의 동선을 배분해주는 중간성격의-은 나타나지 않음, 약간 폐쇄화 되었으나 개방적 성향이 강함	공, 사적 중간영역의 확대: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으로 이양 중
가구사용 및 주양식	부분적 가구사용 입식보다 좌식이 우세	여성의 고립, 권력과 권위의 일부 재배치, 변형된 가부장제: 공업화 초기단계의 특성	가구사용을 전제로 계획된 평면 좌식보다 입식이 우세	권력과 권위의 공유와 다중심화: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으로 이양 중

인공간의 사적 성격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한국사회가 낙관적 후기 산업 사회의 특성이인 “공, 사 개념이 재규정되고 중간영역이 확대된” (조혜정, 1997) 구조로 가는 과정에서 거실공간은 이에 부응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비중 있게 담당하였다.

식사공간이 핵가족 중심의 단란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되고 식탁공간이 별도로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사용이나 입식, 좌식의 주생활 양식변화에 있어서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 변화가 아파트의 경우보다 늦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 주거유형에서 모두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변화는 남녀평등 이념이 현실화되고 남성, 여성간의 위계질서 및 남성의 권위가 와해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해보면 아파트의 경우 각 공간이 이미 많은 부분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을 보이거나, 또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간이 여전히 공업화 초기단계의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공간의 근대화와 서구의 영향

한국 주거에 있어서 서구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부분은 가구의 도입이다. 이는 근대 이전의 오랜 주생활 양식인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벽체를 형성함으로써 주거공간이 폐쇄적으로 변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가구의 사용은 통과동선을 방해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동선을 모아주는 공간, 즉 통로공간을 만들게된다. 이로써 아파트의 경우 서구의 주거공간에 흔히 있는 복도공간의 초기 형성 단계를 보이나, 서구에서와 같은 독립적 복도공간으로서의 완전 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독주택에서는 통과동선이 아파트의 경우보다 더욱 분산적이며 각 실간의 독립성이 약하여 더욱 개방적인 구성을 보인다. 단독주택에서는 가구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구성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좌식의 생활양식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 폐쇄적인 평면은 가구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나 신을 벗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유지됨으로서 좌식의 주생활 양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변화 역시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보다 후발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각 상이한 관점에서 평면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한국 주거의 변화는 사회 변화로 인한 자연진화적 변화와 서구 문화와의 접촉과 충돌로 인한 변혁이 동시에 평행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변화의 배경에 따라 변화의 정도, 즉 고유한 부분이 유지된 부분과 와해된 부분은 달리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거사회학적 측면과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을 때, 공간의 변화는 과거의 전통적 공간구성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서구의 영향도 작용하였으나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것은 그 근저에 내재된 한국사회 자체의 변화욕구,

즉 사고방식과 의식의 변화이다.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저항의 정도 역시 약하게 나타남에 따라, 내적 외적 공, 사 관계 및 가족 내의 위계질서, 여성의 지위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근대적 특성을 갖는 사회적 행위패턴 - 상호 독립적인, 분리지향적인, 기능분화적인-과 그에 대응하는 공간구조는 거의 동화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좌식, 입식의 문제와 같은 생활양식적, 문화인류학적 측면, 그리고 공간구조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을 때 주거공간은 가구의 도입 및 설비의 발달과 같은 서구의 직접적 영향으로 매우 가시적인 변화, 즉 입식화 경향, 공간의 폐쇄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한편으로 전통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유지시키고자하는 경향 역시 매우 강하여, 완전 입식 생활, 실내에서 신을 벗는 행위, 그리고 복도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서구적 평면구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좌식에서 입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는 고유한 전통적 특성이 서구적 생활양식과 충돌하면서 상호 동화되는 부분과 전통적인 것이 유지되는 부분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간구조적 요소 중 전통적인 창호지 마감의 미세기문이나 분합형식의 여닫이문이 완전 소멸되고 외곽여닫이문으로 대체된 것은 주거공간 내 공, 사적 관계가 명확히 분화되는 과정에서 서구적 외곽여닫이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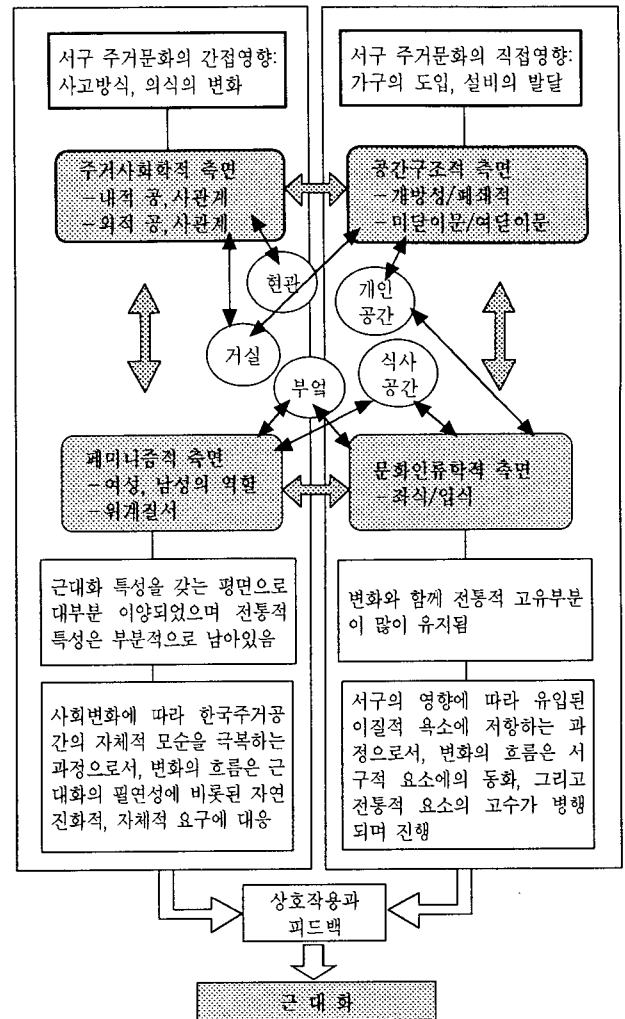
특이할만한 점은 이러한 주거공간 내에 내재된 다양한 행위 특성 간에, 그리고 이들과 공간구조적 특성간에는 상호 밀접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좌식, 입식의 주생활 양식 및 식탁공간 도입의 페미니즘적 의미, 그리고 공간구성에 있어서 외곽여닫이문이 갖는 사회적 행위패턴 조절 역할, 그리고 이상과 같은 여러 요인에 동시에 대응하는 공간의 개방성 및 폐쇄성의 특성은 매우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공간과 행위패턴 및 서구의 영향 등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한국 주거공간의 근대화는 첫째, 일반적인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구에 공간이 필연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 둘째, 동시에 이것이 서구화와 복합적으로 진행된 과정으로 이해된다.

주목되는 점은 일반적으로 근대화를 논할 때 “서구화”의 부분이 더욱 많이 부각되어 가구의 도입이나 입식생활이 가장 대표되는 변화로 인식되어왔으나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의 직접적 충돌에 대한 저항과 함께 전통적 특성이 많이 유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적 의식,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은 근본적으로 거의 근대적 특성을 갖는 공간으로 재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주거사회학적인 요인과 페미니즘적인 요인이 문화적, 생활양식적 요인과 건축적 공

간구조적인 요인보다 주거 내부공간을 자연스럽게 근대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데 더욱 비중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림 1> 주거공간의 근대화와 행위패턴, 서구의 영향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주거 내부공간에서의 구체적인 근대적 요소와 그 배경은 본 고에서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공간, 공동공간의 구별 없이 접촉과 교류에 적합하도록 상호 결합되었던 공간구조는 내적으로는 각 실간에 상호 독립적인 구조로, 외부공간과는 단절된 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개인화와 수평적 가족구조화,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체적 요소의 소멸과 가족만의 사적 독립화라는 주거사회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엌이 내부공간화 되었고 식사공간이 형성되었으며, 이 두 공간에서 입식화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남, 여간의 평등화 및 서비스 받는 자와 서비스하는 자로 형성되었던 가족간 위계질서의 와해라는 페미니즘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셋째, 가구가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기능의 분화라는 행위패턴에 의한 요구와 동시에 주거 내에서 노동 및 휴식의 장이 공존하게 된 페미니즘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문화적, 생활양식적 변화 요인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넷째, 여담이문이 도입되고 벽체가 성립되면서 내부동선은 집중화되었고, 공간의 성격은 폐쇄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공간의 독립성 확보, 입식생활, 기능의 분리등을 요구하는 주거사회학적 요인, 페미니즘적 요인, 문화적, 생활양식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근대적 공간요소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주거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학제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주거의 변혁을 고찰하고 해석하며, 이를 공간구조적 측면과 결부시킴으로써 통합적인 시각을 갖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주거의 근대화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광범위하고 깊은 범위를 모두 언급할 수 없었다는 한계 역시 갖는다. 앞으로 더욱 다각적인 연구로써 우리 주거건축의 근대화가 갖는 의미가 더욱 심도 있게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2년 5월 08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28일

【참 고 문 헌】

고영복(1982). **한국사회의 구조와 의식**.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권희영(2001). **한국사의 근대성 연구**. 백산서당
 공동주택연구회(2001).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박인석 외 2인(1999). 한국 공동주택 단위평면 계획원리로서의 개방적 공간구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2)**, 71-82
 김상희(1995). 한국과 일본의 주택평면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비교: 1945년 이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2)**, 41-51

김선재(1987).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일제시대서울지역의 새로운 도시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주석 외 4인(2001). 주택유형별 공간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15)**, 17-25
 이광규(1998). **한국가족의 사회인류학**. 서울 : 집문당
 _____(1997). **한국문화의 구조인류학**. 서울 : 집문당
 이명현 외 9인(1998). **근대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서울 : 철학과 현실사
 이순희 외 1인(1997). 주거용 연료의 전환에 의한 주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도시주거의 근대화 과정에 관련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8)**, 75-84
 이진경(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서울 : 소명출판.
 임창복(1988).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64-1985 서울지방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2)**, 67-74
 조혜정 외 6인(1997).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 접근-**. 서울 : 집문당.
 주남철(1994). **한국 주택건축**. 서울 : 일지사.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 가족학회(1994). **현대가족과 사회**. 서울 : 교육과학사.
 Elias, N.(1976). 박미애 역(1996). **문명화 과정 I, II**. 서울 : 한길사.
 Feldhusen, G.(1975). **Soziologie fuer Architekten**. Stuttgart.
 Geissler, R.(1996).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Opladen
 Haeusserman, H. & Siebel, W.(1996). **Soziologie des Wohnens**. Muenchen.
 Hoernig, K. H.(1976).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und soziale Schichtung**
 Korte, H. & Schaefers, H.(1993). **Einfuehrung in Hauptbegriffe der Soziologie**. Opladen
 Lee, N. I.(1999). Der Einfluss des sozialen Wandels auf den Gemeinschaftsbereich im sued-koreanischen Massenwohnungsbau, Dissertation RWTH Aachen.
 Shorter, E.(1984). **Die Geburt der modernen Familie**. Hamburg
 Sennett, R.(1985). **Verfall und Ende des oeffentlichen Lebens -Die Tyranei der Intimitaet-**. Frankfurt
 Simmel, G.(1983). **Soziologie des Raumes**. Dahme
 Wagner, W.(1997). **Kulturschock Deutschland**. Hamburg.
 Warhaftig, M.(1980). Die Behinderung der Emanzipation der Frau durch die Wohnung und die Moeglichkeit zur Ueberwindung, Dissertation TU Berlin.